

‘자네’의 용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전남방언을 중심으로—

강 희 숙(조선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자네’의 용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
| 2. ‘자네’의 용법과 기능 | 4. 맺음말 |

1. 머리말

일정한 담화 상황에서 대화의 상대를 직접 가리켜 부르는 데 사용하는 호칭 유형 가운데 하나인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당신, 그대, 이녁, 댁, 자기, 자네, 여러분’ 등 꽤 여러 가지가 있다.¹⁾ 이와 같은 2인칭 대명

* 이 논문은 2005·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연구비 지원(과제번호 : 2005-079-AS0101)에 의해 이루어졌음.

이 연구는 2007년 4월 14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07년도 한국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토론을 맡아 주신 경원대 한성일 교수님, 그리고 학회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왕한석 교수님, 이기갑 교수님 등 학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연구는 지난 5월 11일, 본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전남방언에서의 호칭어의 용법 가운데 하나로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는바, 발표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는 후, 상당히 뜨거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관심의 초점은 상위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자네’의 용법과, 그러한 ‘자네’의 용법이 젊은 세대에게서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 등이었다.

1) 국어 2인칭 대명사의 목록을 정하는 데는 흔히 영어의 2인칭 대명사 ‘you’가 쓰이는 위치에 사용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건이었다. 그리하여 Koo(1992)와 같은 연구에서는

사의 유형 과 용법은 국어 방언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그 가운데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남방언에서의 ‘자네’이다.

전남방언에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당신, 이 녀, 자기, 자네, 집이’²⁾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네’나 ‘집이’는 전남방언에 관한 한, 일종의 사회적 표지(social marker)³⁾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자네’는 다른 방언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독특한 용법으로 인하여 주목을 받아왔다. 예컨대, 전남방언에서는 하위자, 곧 연령이나 서열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람이 상위자를 대상으로 ‘자네’를 쓴다거나, 부부 상호 간의 호칭으로 ‘자네’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남방언에서 나타나는 ‘자네’의 용법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전남방언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기술을 피하고 있는 이기갑(1978, 1982, 1998 등)을 통하여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호칭어의 범주 안에서 독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은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국어 호칭어 연구의 일환으로 전남방언에서의 ‘자네’의 용법을 분석·기술하되, 그와 같은 ‘자네’의 용법이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과 같은 사회적 변수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조사 지점으로는 광주광역시를 선정하였는바,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전남방언이란 엄밀히 말해 광주 지역어를 가리킨다.⁴⁾

무려 64개의 ‘you’ 대체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많은 숫자의 2인칭 대명사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이는 중앙어의 ‘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예에서와 같이 전형적인 ‘허씨요체’(이기갑 1998) 문장에서 쓰인다.

예. 그것은 **집이**가 좀 하시씨요.

집이는 어디 사시요?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표지(social marker)란 Labov(1964 : 102)에서 제시된 세 가지 언어 변수 가운데 하나로, 일정한 변이형의 사용 여부를 통해 화자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언어 변수를 말한다.

자료 수집은 광주광역시 토박이 화자 100명을 표본으로 하여,⁵⁾ 2007년 1월~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면담(interview)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은 면담이라는 비교적 격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어에 대한 체계적 관찰의 결과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 있다.

2. ‘자네’의 용법과 기능

국어의 청자 호칭·지칭어의 체계 및 사용 양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유송영(2002)에서는 중앙어의 경우, 2인칭 대명사 ‘자네’가 주로 다음과 같은 화자-청자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1) ㄱ. 일방적인 사용⁷⁾

- ① 나이가 더 많은 성인 男→나이가 더 적은 성인 男
- ② 나이가 더 많은 성인 男→나이가 더 적은 성인 女
- ③ 나이가 더 많은 성인 女→나이가 더 적은 성인 女
- ④ 나이가 더 많은 성인 女→나이가 더 적은 성인 男

4) 조사 지점을 광주 지역으로 정한 것은 청소년기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온 필자의 언어적 체험이 바탕이 되기도 했지만, ‘자네’와 호응 관계를 이루는 ‘허소체’의 쓰임에 대한 이기갑(1997: 197)의 다음과 같은 기술과도 관련이 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동생이 오빠나 누나에게, 그리고 후배가 나이차가 많지 않은 선배에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허소체’를 쓸 수 있는 세대는 더 낮아지며, 더구나 높임의 위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기존의 인칭대명사를 화용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직시 체계로 보고, 전남방언에서 나타나는 인칭직시소의 형식과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김광희(2004: 265)에서도 광주 출신의 학생들 사이에서 ‘자네’를 선배에 대한 호칭어로 사용하는 경우를 목격하였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5) 100명의 표본(sample)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로 20명씩 선정하려는 의도 아래, 이를 다시 성별로 10명씩, 그리고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라는 학력에 의해 다시 5명씩을 선정하는 방식에 의해 추출되었다.

ㄴ. 양방적인 사용 : 나이든 성인 男 → 나이든 성인 男²⁾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앙어에서 나타나는 ‘자네’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ㄱ. ‘자네’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성인이어야 한다.

ㄴ. ‘자네’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혹은 성인 남성들 간에는 양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자연스러운 일상적 담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방송 드라마라는 제한된 자료³⁾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약간의 제약이 없지 않지만, 중앙어에서 나타나는 ‘자네’의 호칭어로서의 성격을 비교적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2)에서 제시한 언어적 사실 이외에도 중앙어가 지니는 ‘자네’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자네’가 이른바 화자 혹은 청자의 연령 단계(age grading)와 관련되는 발달적 변화(developmental change)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고,⁴⁾ 다른 하나는 ‘자

-
- 7)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관계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유송영 2002 : 125).
- ① 장인 → 사위, 스승 → 장성한 제자, 교수 → 학생 · 조교, 선배 → 후배, 직장상사 → 부하 직원, 동네사람 → 동네사람(어른 → 젊은이, 형님 → 아우), 친구 큰아버지 → 조카의 친구, 아버지 친구 → 친구 아들, 손위처남 → 매부(매부 → 손아래처남), 형 친구 → 친구 동생
 - ② 스승 → 장성한 제자, 교수 → 학생(조교)
 - ③ 언니 → 여동생, 손위시누이 → 손아래올케, 윗동서 → 아랫동서, 시이모 · 고모 → 조카며느리, 동네사람 → 동네사람(어른 → 젊은이, 형님 → 아우)
 - ④ 장모 → 사위, 누나 → 남동생, 어머니 → 아들, 직장상사 → 부하직원
- 2)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로 보면 이들은 어릴 적 친구이거나 동창에 해당한다.
- 3) 1984년부터 2001년까지 MBC와 KBC TV에서 방영된 「사랑과 진실」, 「드라마 게임」, 「사랑이 뭐길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서울의 달」, 「우리가 남인가요」 등 같은 작품에서 사용된 담화 자료를 말한다.
- 4) Hwang(1975)에서는 발달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너’에서 ‘자네’로의 변화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하나는 어린 시절 서로에게 ‘너’를 사용하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서로에게 자네로 교체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어린

네’가 주로 ‘예사나춤’ 혹은 ‘하계체’의 종결어미와 호응 또는 공기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최현배, 1937; 성기철, 1970 등). 따라서 ‘자네’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 (3) ㄱ. 그런데 자네. 내가 자네 기분을 이해한대서 자네 행동까지 정당화 되는 걸루는 받아들이지 말게. (장인 → 사위)
- ㄴ. 자네더러 사람들이 한길동이라네. (처 큰아버지 → 조카사위)

그런데 유송영(2004:134)에 따르면, (3)에서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화자는 동일한 청자에게 ‘자네’ 대신 ‘너’를 교체 사용(switching)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교체 사용의 원인은 주로 ‘친밀함(intimacy)’이나 ‘가까움(closeness)’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너’ 대신 ‘자네’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을 일정한 의미 자질로 나타낸다면, [+대우, +격식, -친밀]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남방언에서는 ‘자네’가 어떠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을까? 필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방언에서의 ‘자네’의 용법은 중앙어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알기 쉽게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남방언에서의 2인칭대명사 ‘자네’의 용법

화자와 청자의 관계		‘자네’ 선택의 요인	비 고
유 형	세부 관계		
하위자→상위자	① 동생 → 형(오빠), 누나(언니) ② 조카 → 이모, 고모, 삼촌 ③ 아랫동서(남) → 윗동서(남) ④ 제부 → 처남(손위) ⑤ 시누이(손아래) → 올케(손위) ⑥ 연하의 이웃 → 연상의 이웃	-대우, -격식, +친밀	①, ②는 [-어른]의 시기부터 형성된 언어적 습관임.

청자에게 ‘너’를 사용하던 것을 그 청자가 성인이 되면 ‘자네’로 교체 사용하는 것이다.

	⑦ 후배 → 선배 ⑧ 하급자 → 직장 상사		
부부간	① 남편 → 아내 ② 아내 → 남편	+대우, -격식, +친밀	
평교간	① 동창 사이 ② 직장 동료 사이 ③ 동년배 이웃 간	+대우, -격식, +친밀	
상위자 → 하위자	① 장인, 장모 → 사위 ② 윗동서 → 아랫동서 ③ 시백모, 시숙모, 시이모, 시고모 → 조카며느리 ④ 형부 → 처제 ⑤ 처남(손위) → 제부 ⑥ 매형 → 처남(손아래) ⑦ 손위 시누 → 올케(손아래) ⑧ 올케(손위) → 시누(손아래) ⑨ 교수 → 조교, 제자 ⑩ 언니, 오빠(누나, 형) → 여동생(남동생) ⑪ 연상의 이웃 → 연하의 이웃	+대우, +격식, -친밀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남 방언에서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 ‘자네’의 용법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하위자 → 상위자’, 곧 화자가 ‘형(오빠), ‘누나’(언니)’나 ‘이모’, ‘고모’, ‘삼촌’, ‘선배’, ‘직장 상사’, ‘윗동서’, ‘처남’, ‘올케’, ‘형수’, ‘이웃의 나이 많은 사람’ 등 자신보다 연장자인 청자에게 ‘자네’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자네’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①, ②의 경우로, 이는 성인이 되기 이전, 주로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을 대상으로 ‘자네’를 사용하던 습관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말하자면, ①, ②의 경우에 나타나는 ‘자네’의 용법은 화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 곧 [-어

른]인 경우에도 쓰일 수 있었던 것이다.⁵⁾ (1)에서 제시한 것처럼 중앙어의 경우에는 ‘자네’가 전적으로 성인 화자가 성인 청자를 대상으로 쓰는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독특한 용법이 아닐 수 없다.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자네’를 사용하는 두 번째 상황은 ③~⑧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성인 화자가 주로 혼인에 의해 새로이 형성된 인간관계에서 자신보다 상위자인 청자에게 ‘자네’를 쓰거나, 선배나 직장의 상사, 연상의 이웃 집단을 대상으로 ‘자네’를 쓰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나이 차는 두세 살 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게는 다섯 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⁶⁾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표준어가 지니는 규범적 기능은 상당히 강한 편이어서 상위자를 대상으로 ‘자네’를 쓰는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는, 때로는 금기시해야 할 일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전남의 토박이 화자들이 상위자를 상대로 사용하는 ‘자네’의 용법이 외지에서 유입해 온 타 지역 방언 화자들에게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남편의 직장 때문에 광주로 이주한 충청도 출신의 한 여성 화자는 자신보다 세 살 아래인 이웃 여성이 자신에게 ‘자네’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한 나머지 그 여성과 절교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⁷⁾

5) 그러나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형(오빠)이나 누나(언니)에게 ‘자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아, 친족어에 ‘-님’을 붙여 호칭하는 사례도 많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남성 화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군대를 갔다 온 뒤나 결혼을 하여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네’를 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6) 전문적인 학술서는 아니지만, 최근 ‘땃말’이라는 신조어를 사용, 전라도에서 사용되는 생생한 토박이말을 정리하고 있는 한세암 외 4인(2006: 80)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자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손아래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지만, 예전 남도에서는 동년배나 나이가 2, 3년 혹은 4, 5년 연상인 사람에게도 흔히 사용하곤 했다. 이를테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게,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중반의 사람에게 ‘자네’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고, 연상인 사람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7) 이와 같은 사례는 적지 않아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의 남성이 서울 출신의 상사에게 친밀감의 표시로 ‘자네’를 사용하였다가 크게 혼이 났다는지, 군대에서

이와 같이, 다른 지역 방언 화자들에게 상당히 불쾌하게, 또는 의아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상위자 → 하위자’ 관계에서의 ‘자네’의 첫 번째 용법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언어 내적 요인은 무엇일까? 이는 우선 ‘자네’와 공기 관계를 맺고 있는 전남방언의 상대높임법의 화계(speech level)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기갑(1998)에서는 전남 방언의 상대높임법의 등급을 세 가지, 곧 ‘허씨요체, 허소체, 해라체’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등급에 관여하는 표현들에 대해 면밀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자네’는 ‘허소체’의 등급에 관여한다. 이 논문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대로, ‘허소체’는 말할이가 [-어른]인 경우와 [+어른]인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자네’의 첫 번째 용법은 화자가 [-어른]인 경우에 사용하는 ‘허소체’의 쓰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때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4) ㄱ. 어린이 → 어머니, 할머니
- ㄴ. 어린 조카 → 삼촌, 고모, 이모
- ㄷ. 동생 → 오빠, 누나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허소체’는 일반적으로 [-대우, -격식, +친밀]의 의미 자질을 갖는데, 이는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사용하는 ‘자네’의 용법의 경우와 거의 일치한다. 물론, 화자가 [-어른]인 경우에 사용하는 ‘허소체’의 쓰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며,⁸⁾ 상위자에 대한 ‘자네’의 용법 또한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다만, (4)에서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사용되는 ‘허소체’와 ‘자네’의 용법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4ㄱ)와 같은 상황, 곧 ‘어머니’나 ‘할머

상사에게 ‘자네’를 사용했다가 뺨을 맞았다는 식의 경험담을 흔히 들을 수 있다.

8) 이기갑(1998 : 359)에서는 화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4ㄷ)의 경우에만 ‘허소체’가 쓰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사회언어학적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니’를 대상으로 ‘자네’를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마도 ‘자네’의 용법이 그와 같은 사회적 관계로까지 확대 적용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네’의 첫 번째 용법, 곧 상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자네’의 쓰임은 전남방언에서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제시하는 한글 간찰 자료가 그 증거이다.

- (5) ㄱ. 자네⁹⁾ 편지 보고 부고(訃告)만 스(賜)호고 가련노라 호니.
 ㄴ. 자네 편지를 보니 아라시미 잇는가 설운 둥 일변 든든히.

위 예문은 17세기 후반의 전남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자료로, 나주임씨 간찰들¹⁰⁾ 가운데 하나인 『임창계선생묵보』(林滄溪先生墨寶)에서 비롯된 것이다. 편지의 발신자는 나주 임씨 임일유(林一儒, 611~1684)의 셋째아들 임영(林泳, 1649~1696)이고, 수신자는 임영의 막내 누이 ‘조서방댁’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자네’는 자신보다 상위자인 누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중앙어를 비롯한 여타의 방언들에서 ‘자네’가 주로 ‘상위자 → 하위자’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전남방언에서는 ‘하위자 → 상위자’의 경우에도 쓰이는 것은 (5)에서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왜 전남방언의 경우에서만 ‘자네’가 역사적 사실을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전남방언의 상대높임법에서 발견되는 보수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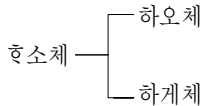
9)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국어의 2인칭대명사 ‘자네’는 15세기 국어의 ‘자네’가 형태상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5)에서 쓰인 ‘자네’는 방언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거나, 표기상의 혼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 자료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편한 『조선 후기 한글 간찰(인간)의 역주 연구 3』에 실린 것으로, 해제에 따르면 나주임씨가 간찰첩은 임일유의 첩 『叢巖公手墨內簡』과 일유의 셋째아들 임영의 첩 『林滄溪先生墨寶』 두 가지가 전하고 있다. 두 가지 자료 모두 17세기 후반의 실제 생활의 단면과 함께 당시의 언어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17세기까지 세 등급의 체계, 곧 ‘호쇼서체’, ‘호소체’, ‘하라체’를 갖추고 있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호소체’가 예사 높임의 ‘호오체’와 예사 낮춤의 ‘호소체’로 분화됨으로써 네 등급의 체계가 이루어졌다(이기갑 1978). 훗날 예사 낮춤의 ‘호소체’는 ‘하계체’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호소체’의 명령법 어미 ‘-소’가 ‘-계’로 같음되면서 이름이 대체된 데 따른 것이다.¹¹⁾

18세기에 이루어진 ‘호소체’의 분화는 국어 방언들 간에 상이한 발달 양상을 보여주는데, 전남방언의 경우에는 ‘호소체’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전남방언에서는 ‘호소체’가 중앙어의 ‘하오체’의 일부와 ‘하계체’를 포괄하는 쓰임을 갖게 된 것이다.¹²⁾ 이와 같은 상대 높임법의 등급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앙어와 전남 방언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6) ㄱ. 중앙어



ㄴ. 전남방언

호소체 → 허소체(‘하오체’와 ‘하계체’의 미분화)

이와 같은 도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어의 경우에는 17세기까지 3등급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높임법 체계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좀더 세분화한 반면, 전남방언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의 높임법 체계를 그대로

11) 고광모(2001 : 145~150)에 따르면, 자음 뒤에서 쓰인 명령법 어미 ‘-소’는 원래 ‘호오체’와 ‘호소체’ 둘 다에서 쓰였는데,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호오체’의 ‘-소’는 ‘-오오’로 같음되고, ‘호소체’의 ‘-소’는 ‘-계’로 같음되었다.

12) 현재의 전남방언에서 ‘하계체’의 위계를 갖는 상대높임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도 바로 ‘호소체’의 분화가 전남방언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로 유지하는 보수적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며, 이는 전남방언이 ‘자네’의 용법에서도 보수성을 갖도록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언급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국어 2인칭대명사의 위계 변화이다. 황문환(2001)에 따르면, 15세기 국어에서 ‘너 <그되 <∅’의 위계를 이루고 있던 국어 2인칭 대명사는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너 <자네 <∅’의 위계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15세기 판본 자료에서 확인된 ‘그되’의 자리를 ‘자네’가 대치하게 된 결과이며, 따라서 ‘자네’는 대우법상 중간 등분에 해당하는 ‘호소체’의 대우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 전남방언에서 ‘자네’가 대우법상 중간 등급인 ‘허소체’와 호응을 이루고 있다는 언어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³⁾

전남방언의 경우, ‘자네’의 2인칭대명사로서의 기능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 ‘자네’가 원래 평칭이 아닌 존칭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려면, 역사적으로는 ‘호소체’의, 공시적으로는 전남방언의 ‘허소체’의 대우법상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을 보자.

(7) ㄱ. 강서방손더 가는 존 디히를 었디 그리 차망되게 호여 보내시는고

<順天金氏墓 出土 諺簡>

13)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2인칭대명사 ‘자네’의 기원에 대해서는 부사 기원설, 재귀대명사 기원설, 대명사 기원설 등 크게 세 가지 설로 구분할 수 있다. 부사 기원설은 유창돈(1965 : 6), 이기문(1979/1991 : 49), 이승녕(1983 : 50~55) 등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15세기에 ‘몸소, 스스로’를 뜻하는 부사 ‘자네’가 2인칭 대명사로 전용된 뒤 어형 변화를 겪은 결과 ‘자네’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재귀대명사 기원설은 이호권(1998), 황문환(2001) 등에서 제기된 것으로, 중세국어에서 ‘자네’가 ‘저, 즈가’ 등과 마찬가지로 재귀대명사로도 존재하였으며, 그 이후 재귀대명사 ‘자네’가 2인칭 대명사 ‘자네’로 전용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자네’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명사 기원설은 양영희(2005)에서 새로이 제시된 것으로, ‘자네’가 원래부터 대명사, 구체적으로는 3인칭 대명사로 쓰이다가 16세기에 이르러 2인칭 대명사로 전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필자의 현재 입장으로서의 문제의 시비를 정확히 가릴 형편이 되지는 못하지만, 15세기 국어에서 ‘자네’가 단일한 문법적 기능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해 온 범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다가, 후대에 이르러 그 기능이 축소되어 2인칭 대명사로 전이된 기능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나. 小인이 어제 웃디고 혼 며함 두습고 오니 보신가 <朴通事諺解 상 : 58>

- (8) 자네 시방 먼 말을 그라고 해싼가? 내가 은제 자네를 시피왔다고 그랑가? 인자 우리가 남도 아난디 나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는가? 있다면 오해를 푸시소. <한새암 외, 2006 : 125>

위의 예문 가운데 (7)은 16세기 중·후반의 자료이고, (8)은 현재의 전남 방언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호소체’ 혹은 ‘허소체’의 대우 등급에서 쓰이는 종결어미들 가운데는 2인칭 주어문에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2인칭 주어문에서는 ‘주체=청자’가 전제되는바, 주체이자 청자에 해당하는 ‘자네’가 높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 1]에서 제시된 ‘자네’의 첫 번째 용법, 곧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2인칭대명사 ‘자네’를 사용하는 것은 통시적 언어 사실을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다만, 오늘날 전남방언에서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2인칭대명사 ‘자네’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작용하는 의미 요인으로는 [대우]나 [격식성]보다는 [친밀감]이 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상위자에게 ‘자네’와 함께 ‘허소체’의 대우 등급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비격식적 언어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러한 시기에 작용하였던 정서적 유대감 혹은 친밀감이 계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¹⁵⁾

[표 1]에서 확인된 전남방언에서의 ‘자네’의 두 번째 용법은 부부 상호간의 호칭으로 ‘자네’를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아내 → 남편’의

14) 이기갑(1997 : 197)에서 “서남 방언의 ‘허소체’는 표준어의 ‘하계체’가 쓰이는 범위를 포괄하면서 거기에 표준어에 없는 쓰임까지도 갖는다.”고 본 것도 바로 ‘허소체’가 갖는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이기갑(1998 : 359)에 따르면, 말할이가 [-어른]인 경우, ① 어린이나 어머니에게, ② 어린 조카가 ‘삼촌, 고모, 이모’ 등에게 ‘허소체’를 선택한다. 이러한 언어 사용이야말로 유년기에 형성된 전형적인 비격식적 언어 사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보다는 ‘남편 → 아내’의 경우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자네’가 선택되고 있긴 하지만(후술 참조), ‘자네’가 부부 상호 간의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언어적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타의 국어 방언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는 점에서 전남방언이 지니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언어적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예컨대, 김혜숙(2004)은 충청도 소재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부부가 첫 대면 시기부터 결혼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상호간에 사용하는 호칭어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록 가운데 ‘자네’가 호칭어로 사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는다.¹⁶⁾

흥미로운 것은 ‘자네’가 부부 상호 간의 호칭으로 사용된 예를 16세기 이후의 자료로 알려진 몇몇 한글 언간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이 그 예이다.

- (9) ㄱ. 이제란 원간 겨집종으란 내버려 두어든 자네 브리소. <順天金氏墓 出土 諺簡>
 ㄴ. 자네 흥츠는 내 둔너 온 후에야 흐리로쇠. <玄風郭氏墓 出土 諺簡>
 ㄷ. 자네 올 제 브더 일 나 과천 디나 덤심히고 사그네 디나고 즈골이라 혼 디 와 자소.<申冕 諺簡>
- (10) ㄱ. 엇디 햏야 살라햏야 다 더디고 자네 몬져 가시논고. <이응태 묘 출토 편지>
 ㄴ. 아내 안흔 어디다가 두고 즈식 드리고 자네를 그려 살려뇨 햏노이다. <이응태 묘 출토 편지>

위의 예문들 가운데 (9)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내를 ‘자네’로 호칭한 경우로, (9ㄱ)은 16세기 후반의 자료인 <順天金氏 諺簡>의

16) 1995년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는 남녀 우위가 없는 7쌍의 상호적인 부부 호칭어를 표준 화법으로 제시한바 있다. ‘여보 ↔ 여보, ○○씨 ↔ ○○씨, 여봐요 ↔ 여봐요, ○○아버지 ↔ ○○어머니, ○○아빠 ↔ ○○엄마, 영감 ↔ 임자, ○○할아버지 ↔ ○○할머니’가 그것인데, 여기에서도 ‘자네’와 같은 호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예이고, (9ㄴ)은 17세기 초엽의 자료인 <玄風郭氏 諺簡>, (9ㄷ)은 17세기 중반의 <申晁 諺簡>의 예이다.

한편, (10)은 1998년 4월 24일 안동시 정상동의 택지 조성 작업 중 출토된 이응태(李應台)의 묘에서 발견된 편지에서 가져온 예인데, 이 역시 <順天金氏 諺簡>과 마찬가지로 16세기 후반의 언어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응태 묘의 편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최초의 한글 편지로서,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자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안귀남 1999).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 편지에서는 모두 14회의 ‘자내’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적 사실과 관련하여 최근 조선시대 언간 자료에서 확인된 부부간의 호칭과 화계를 다룬 황문환(2007)에서는 [남편 → 아내]의 언간이든 [아내 → 남편]의 언간이든 ‘자내~호소체 종결형’의 대우가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16세기에는 부부간에 대등한 화계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다만, (9), (10)의 자료를 대조해 보면, 청자 대우의 등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즉, (9)에서는 ‘자내’가 ‘-소, -녀’와 같은 ‘호소체’의 종결어미와 결합하고 있지만, (10)에서는 ‘호소체’의 종결어미 ‘-고’와 결합하는 한편으로 (10ㄱ), ‘호쇼셔체’ 종결어미 ‘-노이다’와도 결합함으로써 (10ㄴ) ‘자내’가 ‘호소체’와 ‘호쇼셔체’를 넘나들며 결합하였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남편 → 아내]의 경우보다도, [아내 → 남편]의 경우에 한 단계 높은 청자 대우 등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호쇼셔체’보다는 ‘호소체’와 결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내’는 주로 ‘호소체’와 결합하는 대명사였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내’의 두 가지 용법이 여타의 국어 방언들과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되는 전남방언의 독특한 용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용법 곧 ‘평교간’이나 ‘상위자 → 하위자’에게 사용하는 ‘자내’의 용법은 다른 지역

방언들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1)에서 제시한 중앙어에서의 ‘자네’의 용법과 비교해 볼 때, ‘평교간’에 사용하는 ‘자네’는 (1ㄴ)에 제시한 양방적인 용법에 해당하며, ‘상위자 → 하위자’의 경우는 (1ㄷ)에 제시한 일방적인 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자네’의 용법은 구체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교간에 사용하는 ‘자네’의 경우, 중앙어의 경우는 성인 남성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양방적인 호칭이지만, 전남방언의 경우에는 성별에 큰 차이가 없이 성인 여성들 사이에서도 자주 쓰인다. 예컨대, 남녀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창들끼리는 [남성 ↔ 남성], [여성 ↔ 여성], [남성 ↔ 여성]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간에 ‘자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평교간에 사용하는 ‘자네’의 용법은 교제 시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동창들에 대해서는 호칭으로 ‘너’를 사용하다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부터 ‘자네’로 대체하게 되는 반면, 대학 동창에 대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네’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자네’를 평교간의 호칭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기는 대학생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른바 발달적 변화(Hwang 1975)에 해당하는 이러한 ‘자네’의 용법은 상호간에 나이에 걸맞은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셋째, [상위자 → 하위자]의 경우에 사용하는 ‘자네’의 경우 역시 상대높임법의 등급은 중앙어의 ‘하계체’가 아닌 ‘허소체’가 사용되며, 따라서 하위자라고 하더라도 친밀감이 없는 경우에는 ‘자네’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예컨대,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동료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제지간이거나 선후배지간이 아니라면, 상위 직급의 교수가 하위 직급의 교수에게 ‘자네’를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 (11) 선배교수 : 자네, 지금 뒤편가? 안 바쁘면 같이 좀 갈란다?
 후배교수 : 어딜 가시게요?

여기에서 보듯이, 전남방언의 경우, 하위자에게 사용되는 ‘자네’는 전형적인 ‘허소체’의 의문법 종결어미 ‘-ㄴ가’와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3)의 예와 같이 전형적으로 ‘하계체’의 종결어미와 결합하게 되는 중양어와 차이를 보인다.

넷째, 여동생이나 남동생에 대해서는 원래 ‘이름’이나 ‘너’를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갖게 된 후에는 평교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네’를 호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상대를 어느 정도 대우해 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다섯째, [상위자 → 하위자]의 경우에 사용하는 ‘자네’의 용법 가운데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이거나 장인과 사위인 경우, 이름을 직접 호칭하거나 2인칭 대명사 ‘너’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격식적이어서 친밀감이 덜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네’를 쓰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이름’이나 ‘너’는 상대 높임의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해라체’와 호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상위자가 가능한 한 ‘스승 → 제자’, ‘장인 → 사위’와 같은 상황에서 격식성과 거리감을 줄이려는 전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3. ‘자네’의 용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전남방언의 2인칭대명사 ‘자네’의 용법은 화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상황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17) 이경우(2004 : 558~560)에서도 ‘장모 → 사위’ 또는 ‘장인 → 사위’의 경우에 격식적인 ‘하계체’ 외에도 ‘해체’ 혹은 ‘해라체’가 사용되기도 하는바, 이는 격식성보다는 친화력이 중요한 언어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다.

있다. 이러한 예측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주 지역 토박이 화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을 통해 ‘자네’가 화자의 연령과 성별, 학력 등의 사회적 변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회적 변수에 따른 ‘자네’의 분포¹⁸⁾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학력 (고졸 이하, 대졸)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동창 간 에	초등학교	남자	1		3	1	1	1	3	3	1	3	2	5	3	1	5	4		14	13	5	5	
		여자			2				2	1	2	1	3	3	3		3	5	1	10	9	5	2	
	중학교	남자	1		3	1	1	1	2	4	1	2	2	5	3		3	3		11	13	5	3	
		여자			1				2		2	1	3	2	3		3	3	1	9	5	5	2	
	고등학교	남자	3	1		3		1	1	4	5	1	2	3	5	3	1	4	4		17	15	5	3
		여자				1				3			1	1	2	2	1	2	1	2	7	3	2	4
	대학교	남자		1			3		1		4		1		5		1		4	1	17			4
		여자		1							1		1		2		3		2	4	6			8
선 후 배 간 에	남자 선배	1							2			1	1	1	1	2	1	3		5	4	1	3	
	여자 선배								2		1	2	2	0	2	2	1	2	1	5	2	3	5	
	남자 후배	3	3		1	4	3	1	2	5	4	3	2	4	5	3	3	4	4		20	19	7	8
	여자 후배		1			4	1		1	3	2	3	1	3	4	5	3	2	4	1	12	12	8	6
직 장 동 료 간 에	상급자에게								1			1				1	2			3	0	0	2	
	동급자에게		1		2	5	2	1		4	2	3	1	4	1	2	1	4	4	2	17	10	6	6
	하급자에게	1	3																		17	18	5	8

18) 이 표에서 표시하지 않은 채 빈칸으로 남겨 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거나 자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친 족 간 에	형에게							3					1	1			1	1					5	2	
	남동생에게	2						2					2	2			3	2					7	6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학 력 (고졸 이하, 대졸)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친 족 간 에 (남 성)	누나에게							2					1			2					4	1			
	여동생에게	1		1				2					1	1			3	1					7	3	
	매부에게	1				3	1							3			2	1					7	7	
	아내에게					5	3							4	3			5	2					17	10
	형수에게																								
	제수에게																								
	처남(손위)	1							2					2			2					6	1		
	처남(아래)					3	3							5	2			4	5					15	15
	처형에게																								
	처제에게					1									4			1	1					7	3
친 족 간 에 (남 성)	윗동서에게							1						1									1	1	
	아랫동서에게					3	1							5	4			4	2					16	12
	아들에게																								
	딸에게																								
	사위에게							2						4	1			2	4					8	5
	며느리에게																								
	조카에게							4	1					1			2	1					6	4	
	조카며느리에게							2						1			3	2					6	2	
	어머니에게																								
	이모에게																								
	고모에게													1									0	1	
	삼촌에게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	-----	-----	-----	-----	-----	---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학 력 (고졸 이하, 대졸)														
친 족 간 에 (여 성)	오빠에게				1					1		1	0 3	
	남동생에게				1		1			2 1		4 1	8 2	
	언니에게						1 1			1 3		4	2 8	
	여동생에게				1 1					1		3 1	4 3	
	남편에게				1 2			2 2			2 4		5 8	
	윗동서에게							1					0 1	
	아랫동서에게				4 2			5 3			5 5		4 4	18 14
	올케(손위)							1						0 1
	올케(손아래)				2 2			4 2			4 3		5 2	15 9
	시누(손위)													0 0
	시누(손아래)							1 1			2 1		1 2	4 4
	형부에게													0 0
	제부에게				1						1			0 2
	아들에게													0 0
	딸에게													0 0
	사위에게										3 2		5 4	8 6
	며느리에게													0 0
	조카에게				1			2 1			3 2		5 2	11 5
	조카며느리에게				1			2 1			3 3		5 3	11 7
	어머니에게													0 0
	이모에게							1			1			1 1
고모에게										1		1	0 2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학 력 (고졸 이하, 대졸)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고	대								
삼촌에게													0	0	1							
이 웃 간 에	연상의 남성에게					2		1	1	1		1	1	4	2	0	1					
	연상의 여성에게	1				2	1	1			1	1		2	2	1	2					
	동년배 남성에게			2	2	1	4	2	1	2	4	2	2	3	3		139	4	2			
	동년배 여성에게			1	2	1	1	2	1	2	1	1	2	2	4	1	2	2	7	5	7	6
	연하의 남성에게	2	1	4	4	1	1	5	4	1	2	4	3	4	2	1	2	2	14	15	6	8
	연하의 여성에게			2	1	1	2		3	1		1	4	3	1	2	2	2	4	3	10	6

이상과 같이 제시된 사회적 변수에 따른 ‘자네’의 분포를 통해 확인된 언어적 사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1]에서 제시한 ‘자네’의 네 가지 용법은 모두 ‘성별’ 요인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가령, 평균간에 사용하는 ‘자네’의 경우,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여성 보다는 남성들이 ‘자네’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며, 특히 대학 동창인 경우 남성들 사이에서 그러한 사용이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대체적으로 보아 남성 화자가 남성 청자를 대상으로 ‘자네’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성별’ 요인 외에도 ‘연령’ 역시 ‘자네’의 선택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평균간’이나 ‘상위자 → 하위자’의 상황에서 쓰이는 ‘자네’는 20대(남성)에서도 출현하지만, 30대가 넘어서야 좀 더 일반적인 호칭으로 선택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자네’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30대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40대 정도가 되어야 ‘자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척이나 이웃 간을 제외하면, 60대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 ‘자네’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가 대부분 친족집단이나 이웃 집단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졸 이하의 여성들에게서 좀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또한, ‘하위자 → 상위자’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자네’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주로 40대 이상의 화자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남방언의 경우, [-어른]의 경우에도 ‘형(오빠)이나 누나(언니), 고모, 이모, 삼촌’ 등 가까운 친척에게 ‘허소체’의 등급과 함께 ‘자네’를 사용하던 언어적 전통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면담 과정에서 확인되었던바, 20, 30대 화자들 대부분이 상위자에게 ‘자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전남방언에 있어서도 ‘하위자 → 상위자’의 상황에서는 ‘자네’를 사용하지 않는 표준어 규범의 수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네’의 사용은 ‘교육 수준’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몇몇 특징적인 경우(직장의 하위 직급이나 ‘연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빈도로 ‘자네’를 사용한다.

넷째, 부부 상호간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를 사용하는 경우(13회)보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용하는 경우(27회)에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부부간에 사용하는 ‘자네’는 ‘남편 → 아내’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네’의 사용 빈도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좀 더 낮은 분포를 보이며, 특히 60대 여성들의 경우는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자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노년층에 이르러서는 다른 대안적 호칭이 선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19) 노년층 여성들이 사용하는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는 ‘영감’이나 ‘에 말이요’, ‘여그 잔 보 씨요’와 같은 일종의 호출어적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어 상대높임법의 등급 가운데 하나인 ‘하계체’의 사용과 관련되는 발달적 변화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던 2인칭대명사 ‘자네’가 전남방언의 경우, 매우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다양한 용법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타의 국어 방언들에서는 ‘자네’가 주로 평교간이나 ‘상위자 → 하위자’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것과 달리, 전남방언에서는 ‘하위자 → 상위자’, 그리고 부부 상호간의 호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방언적 특징은 국어의 역사적 발달 단계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자네’의 용법을 보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임을 새로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자네’의 용법에 대한 국어 방언들 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방언학적인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하위자 → 상위자’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자네’의 용법은 전남방언 내에서도 하위 지역어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언권에 따라 실제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²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후일을 기약한다.

▮주제어 : 2인칭대명사, 자네, 전남방언, 발달적 변화, 사회적 변수, 방언의 보수성

20) 흥미롭게도 전남 목포 지역어에서는 상위자에 대한 호칭으로 ‘자네’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진도 지역어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자네’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등의 제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 지점인 광주지역어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네’를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네’의 용법이 전남방언의 하위 지역어들 간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 참 고 문 헌 >

- 김광희(2004), 「전남 동부의 구술담화에 나타난 인칭직시소의 형식과 기능」, 『국어학』 44, 국어학회, pp.239~278.
- 김혜숙(2004), 한국어 부부의 관계 변화에 따른 호칭어 사용 변화, 『사회언어학』 12-2, 한국사회언어학회.
- 배양서(1989), 「2인칭 대명사의 사회학적 의미」, 『언어』 10, 충남대, pp.73~82.
- 백두현(1997), 「현풍 관씨 언간 판독문」, 『어문논총』 31, 경북 어문학회.
- 성기철(1970), 「국어 대우법 연구」, 『논문집』 4, 충북대.
- 성기철(1999), 「20세기 청자대우법의 변천-화계의 사회언어학적 변천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안귀남(1999), 「이용태 부인이 쓴 인간의 국어학적 의의」, 『인문과학연구』 1, 안동대.
- 양영희(2005), 「15·16세기 '자네'의 변천 양상 탐색」, 『한국어학』 28, 한국어학회.
- 왕한석 외(2005), 『한국사회와 호칭어』, 역락.
- 유송영(1994),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I)-불특정 청자 대우를 중심으로-」, 『국어학』 24, 국어학회, pp.291~317.
- 유송영(1997), 「국어 청자 대우 어미의 교체 사용과 청자 대우법 체계-힘(power)과 유대(solidarity)의 정도성에 대한 담화 분석적 접근-」, 박사학위논문(고려대).
- 유송영(2004), 「2인칭 대명사 '당신, 자네, 너'의 사용」, 『한국어학』 23, 한국어학회.
- 윤천택(2004), 「학교 문법의 상대 높임법 기술 내용 재고」, 『청람어문교육』 29,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경우(2004),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3)」,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545~587.
- 이기갑(1978), 「우리말 상대높임 등급 체계의 변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 이기갑(1982), 「전남 북부 방언의 상대높임법」, 『언어학』 5, 한국언어학회.
- 이기갑(1997), 「한국어 방언들 사이의 상대높임법 비교 연구」, 『언어학』 21, 한국언어학회.
- 이기갑(1998), 「전남방언의 상대높임법」, 『한글 240·241』, 한글학회.
- 이승희(2004), 「국어의 청자 높임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이정복(1996), 「국어 경어법의 말 단계 변동 현상」, 『사회언어학』 4-1, pp.51~81.
-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3, 태학사.

- 한새암 외 4인(2006), 『전라도 우리 뱃말』, 소금나무.
- 황문환(2001), 「이인칭대명사 자네의 기원」, 『국어학』 37, 국어학회.
- 황문환(2002), 『16,17세기 인간의 상대경어법』, 국어학회.
- 황문환(200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부부간 호칭과 화계」, 『장서각』 17집, 한국학중앙연구원.
- Hwang, Juck-Ryoon(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Ph.D., Univ. of Texas at Austin.
- Labov, W.(1964), Stages in the Acquisition of Standard English, Shuy, R.W.(1964). *Social Dialects and Language Learning* Campaign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 Koo, J.H.(1992), The Term of Adress "You" in South Korea Today. Korea Journal 32.1 : 27~42

{Abstract}

A Sociolinguistic Study on the Usage of ‘Jane’

–the 2nd Person Pronoun in Jeonnam Dialects–

Kang, Huisuk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what correlation exists between ‘Jane’, the second person pronoun in Jeonnam dialects and social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For this study, it interviews 100 native speakers from Gwangju for three months from January to March to collect data.

As a result, it is demonstrated that the term of ‘Jane’ which was recognized just as part of the developmental changes has been used in various social relations diversely, has a close relation with many social variables. In particular, the term of ‘Jane’ is used for the relations between friends of about the same age, or from superior to subordinate people in any other area, but it is used even for the relations from subordinate to superior ones and couples in Jeonnam dialects. It is newly demonstrated that such dialectic characteristic conservatively reflects the term of ‘Jane’ which existed actually in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dialectically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contributes to identification of difference among Korean dialects.

Key words : the second person pronoun, ‘Jane’, developmental changes, social variables, historical development

강희숙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전자우편 : hskang@chosun.ac.kr
